논어 17편 양화 5장 · 원문·풀이

公山弗擾以費畔，召，子欲往。子路不說，曰：「末之也已，何必公山氏之之也。」子曰：「夫召我者，而豈徒哉？如有用我者，吾其爲東周乎！」

독음 · 공산불요이비반 소 자욕왕 자로불열 왈 말지야이 하필공산씨지지야 자왈 부소아자 이기도재 여유용아자 오기위동주호

쉬운 풀이(요약) · 반란을 일으킨 공산불요의 부름에 가려 하자 자로가 반대했다. 공자는 자신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있다면 동쪽에서 주나라의 도를 되살리고 싶다고 했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公 공변될 공 공 / 山 뫼 산 산 / 弗 아닐 불 불 / 擾 길들일 요 요

以 써 이 이 / 費 쓸 비 비 / 畔 지경 반 반 / 召 부를 소 소

子 아들 자 / 欲 욕심낼 욕 욕 / 往 갈 왕 왕 / 路 길 로 로

不 아닐 불 / 說 기쁠 열 / 曰 가로 왈 / 末 끝 말 말

之 갈 지 / 也 어조사 야 / 已 이미 이 이 / 何 어찌 하 하

必 반드시 필 필 / 氏 성 씨 씨 / 夫 지아비 부 부 / 我 자기 아 아

者 놈 자 / 而 말이을 이 / 豈 어찌 기 기 / 徒 무리 도 도

哉 비로소 재 재 / 如 같을 여 여 / 有 있을 유 / 用 쓸 용 용

吾 자기 오 오 / 其 그 기 / 爲 할 위 / 東 동녘 동 동

周 두루 주 주 / 乎 어조사 호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